

문화

임방울 국악제 막오른다



학생·일반·명창 3개부문…내달 5~8일까지 광주문화회관
퓨전국악·무용·비보이 어울림 마당 등 전야제 행사 풍성

상금이 주어진다. 참가자는 오는 9월 4일 오후 6시까지 접수 받는다.

이번 국악제의 가장 큰 행사인 일반부·명창부 경연 본선대회는 8일 오후 2시부터 광주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열린다.

경연 전에는 셋김굿, 훈맞이, 열립굿 등으로 구성된 '국창 임방울 예술훈 모시기'가 열리며 경연 중 간중간에는 남도민요, 각설이 타령, 진도복춤 등 다채로운 공연을 만날 수 있다. 최종민씨의 사회로 진행되는 경연실황은 SBS를 통해 전국에 생방송된다.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며 다양한 경품 추첨도 진행한다.

국악을 좋아하는 시민들을 위한 행사도 준비돼 있다.

5일 오후 6시 광주문화회관 대극장에서는 국악인 오정해씨의 사회로 전야제를 진행한다.

'보고 지고 보고 지고리는 제복으로 열리는 전야제는 정통 국악과 퓨전 국악, 무용, 비보이 등이 어우러진 화려한 향연으로 꾸며진다.

창과 국악관현악이 어우러진 부대에서는 명창 조통달씨, 2008년 대통령상 수상자 김미나씨, 소리꾼 왕기철씨, 오정해씨가 광주시

(사)임방울국악진흥회 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국악제는 학생부(관소리·기악·무용)와 일반부(관소리·기악·무용·시조·가야금병창·농악), 명창부(관소리) 등 3개 부문으로 나눠 진행된다.

관소리 명창부 대통령상(상금 1천 500만원·순금 60돈 트로피)을

비롯, 모두 58명에게 총 1억원의



〈오정해씨〉 〈김용우씨〉

립국악관현악단의 반주에 맞춰 '속대머리' '이산재산' '주익' '가자 가지' 등을 들려준다.

또 카네티크 국악그룹 '엔'과 젊은 소리꾼 김용우씨가 '아리랑 연곡'

과 '창부타령'을 선사하며 비보이 그룹 '플라잉 코리안'은 '한오백년'

과 '노들강변' 등 우리 민요에 맞춰 현란한 춤을 보여준다.

마지막 무대는 광주시립국극단의 '판굿'이 장식하며 공연 실황은 KBC를 통해 생방송된다.

'우리도 명창 경연 대회'(5일 오전 9시 광주시민회관)는 일반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다. 임방울 명창이 자주 불렀던 판소리 '춘향가' 중 '속대머리' '호남가' '주익'

가운데 한곡을 선택해 부르면 된다. 신청마감은 오는 9월 4일이다.

문의 062-521-0731~2.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강익중 작 '비람으로 섞이고 땅으로 이어지고'

식물원에 '예술 꽃' 피운다

부국문화재단 여미지 아트 프로젝트

강익중·김주현 등 유명작가 작품 전시

식물원에 예술작품이 들어선다면 어떤 모습일까?

제주 서귀포 중문단지 내 여미지식물원에 미술 작품들이 들어서는 이색 이벤트가 열린다. 부국문화재단(이사장 남상규)은 다음 달 2일부터 여미지식물원에서 작가 10팀의 작품을 전시하는 '제1회 여미지 아트프로젝트'를 연다고 25일 밝혔다.

1989년 문을 연 뒤 많은 관람객이 찾는 제주의 관광 명소 중 하나가 됐지만,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을 거쳐 현재의 소유주로 주인이 바뀌는 과정에서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던 여미지식물원에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려는 작업이다.

미술평론가 아주현씨가 기획을 맡은 이번 프로젝트에는 재미화가 강익중씨를 비롯해 김주현, 배영환, 안규철, 정현, 미술그룹 플라잉시티, 일본의 아오키 노에, 중국의 위관, 디자이너 이장섭, 건축가 정수진 등 10팀이 참여해 식물원에 어우러지는 작품들을 선보인다.

이들 가운데 강익중은 가로 120cm, 세로 120cm 크기의 폭포 그림 48점과 LED바를 이용해 천제연 폭포를 상징하는 15m 크기의 대형 작품을 선보인다. 또 이장섭은 투명한 푸른빛을 띤 와이(Y)자 모양의 폴리카보네이트 구조물을 불규칙하게 이어붙여 나무뿌리를 형상화한 작품을, 정현은 8m60cm에 달하는 대형 철 구조물로 가늘고 긴 나무들을 형상화한 작품을 출품한다.

전시작품은 2년에 한 번씩 교체될 예정이다. 064-735-1100. /온라인기자 kroh@kwangju.co.kr



〈장정희씨〉 〈배봉기씨〉

장정희·배봉기씨 소설

'문화나눔' 우수도서 선정

한국도서관협회 문학나눔사업추진반이 선정하는 2009년도 2/4분기 우수문학도서에 소설가 장정희(47)씨의 '홀스위트 흘(Human & Books 페럼)'과 배봉기(53·광주대 문창과 교수)의 청소년 소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사계절 페냄)가 각각 선정됐다.

광주대광이고 교사인 장정희씨가 쓴 소설 '홀스위트 흘'은 가족의 군열을 세밀하게 그려낸 작품으로 제작자 '홀스위트 흘'을 비롯해 '봄비' '꽃불' '마이 트윈스' 등 가족의 의미와 개인의 정체성을 탐구하는 열한 편을 엮은 단편소설집이다.

배봉기 교수의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는 입시를 향한 학교 교육의 집단 광기를 정면에서 다룬 소설로 인터넷 학교신문에서 학생의 자살에 관한 기획특집을 실기로 하면서 벌어지는 일들을 그린 청소년 소설이다.

이외에도 김기택씨의 '깜', 한창훈의 '나는 여기가 좋다' 등 총 30권을 선정했다.

한편 우수문학도서를 선정, 소외지역(계층)의 작은도서관 등에 보급하는 우수문학도서 보급사업은 이번 분기부터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학나눔사업국에서 한국도서관협회로 이관됐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전국 문인들 '남도 문학의 멋' 기행

내달 5~6일 장흥·문화현장 답사

'문화관광기행특구' 장흥에서 만납시다.

전라남도와 장흥군이 후원하고 전남문인협회가 주관하는 '제3회 전국문인초청 전남기행'이 오는 9월 5일부터 6일까지 1박 2일간 전국 14개 시도 문인 대표 1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장흥군 일원에서 열린다.

특히 이번 '전국문인 초청 전남기행'은 지난해 지식경제부가 지정한 문학관광기행특구 장흥에서 열리는 데다 최근 1주기를 맞은 이청준 선생의 문학 현장 답사와 함께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남다르다.

만남의 날인 첫째 날 5일에는 장흥문화예술회관에서 개회를 선언하고, 시조시인 고두석씨 초청 강연과

전국 시·도별 시낭송, 장기자랑이 펼쳐진다.

둘째 날은 기행의 날로 장흥가단·가사문화 산실 탐방, 소설가 한승원과의 만남, 장흥 소설문화의 현장 탐방순으로 진행된다.

고 이청준 선생의 연작소설 '남도 사람'의 현장과 생가 방문, 송기숙씨의 소설 '자락골의 비가' 배경이 된 장흥군 응암면 포곡마을 일대 현장 답사가 이어진다. 또 친자연문화테마파크인 천관산문화관·문화공원, 계명성 시비공원 답사도 준비돼 있다.

조수웅 전남문인협회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문학 작품의 훌륭한 소재가 될 전남을 전국에 알릴 수 있을 것"이라며 "팔도의 문학을 엮어보고 좋은 작품을 구상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임동성당서 27일 황양숙 교수 무료 공연

〈황양숙 호남신학대 교수〉

광주에서 파이프 오르간이 설치된 곳은 임동성당이 유일하다. 지난 2006년 임동성당에 설치된 파이프 오르간은 국내 최고의 오르간 마이스터인 흥성훈 씨가 제작한 '한국형 파이프 오르간'으로 모두 5억 5천만 원의 제작비가 들었다.

광주에서는 좀처럼 접하기 어려운 파이프 오르간 연주회가 열린다.

황양숙 호남신학대 교수가 27일 오후 7시30분 광주 임동성당에서 오르간 독주회를 갖는다. 무료 공연.

황씨는 이번 연주회에서 모차르트의 '황상곡 F단조 작품 608', 독일 작곡가 복스테후데의 '내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나이다', C.P.E 바하의 '소나타 A장조' 등 다양한 오르간곡들을 선보인다.

이화여대 종교음악과와 동대학원을 졸업한 황씨는 미국 보스턴 음악대학과 맨하탄 음악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한국오르간나이스트 협회 광주·전남지부장과 기획 이사도 맡고 있다.

황씨는 광주 공연에 오는 9월 7일 서울 경동교회에서도 독주회를 가질 예정이다. 문의 062-650-1560.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아문화수도 세계에 알릴 통신원 선정

호주 등 19개국 44명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광주를 홍보할 해외 통신원들이 선정됐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진단단은 25일 2009 하반기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해외통신원 44명을 선정, 발표했다.

이번에 뽑힌 통신원은 뉴칼레도니아, 네덜란드, 호주 등 19개국 44명으로 그리스의 올가

포렐리씨 등 외국인도 10명 포함돼 있다.

통신원들은 각국 문화도시 조성 사례, 지역 문화예술 활동, 문화콘텐츠 산업 등 다양한 주제를 글과 사진, 영상으로 제공한다.

통신원의 활동 사항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홈페이지(www.cct.go.kr)와 추진단에서 발행하는 '문화 아시아', 영문 뉴스레터, 추진단 카페 및 블로그에서 만날 수 있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영화안내 HAPPY TIME

인기영화 즐거운시간 보내세요

영화는 어디에서 볼까요? www.moviebox.co.kr

메가박스
 구.현대국사거리 ☎ 1544-0600

1관	국가대표 (12세)	최고관
2관	요가학원 (15세)	
3관	해운대 (12세)/퍼블릭에너지 (15세)	
4관	해운대 (12세)	
5관	지.아이.조 (15세)	
6관	아이스에이지-3(전체)/불신자 (15세)	
7관	퍼펙스겟어웨이 (15세)	
8관	소피의연애메뉴얼 (12세)/라고르원치 (18세)	
9관	국가대표 (12세)	

* 이프루 주차장 이용시 2시간 30분 무료
(단, 영화 관람고객 제한 : 2시간 30분 초과시 정상요금 부과)

콜롬버스 시네마

상수점 (상무병원과 이마트 사이) 해운대 (무역화교면)

1관	10억 (15세)/업-더빙 (전체)
2관	불신자 (15세)
3관	국가대표 (12세)
4관	국가대표 (12세)
5관	4교시 추리영역 (15세)/아이스에이지-3 (전체)
6관	해리포터와 혼혈왕자 (전체)/아이스에이지-3 (전체)
7관	해운대 (12세)
8관	퍼펙스겟어웨이 (15세)
9관	지.아이.조 (15세)
10관	해운대 (12세)

[상무점] 매일 팝콘 무료증정!

1588-7941

하미 시네마

전대후문 하미스포츠 ☎ 267-7777

1관	4교시 추리영역 (15세)/요가학원 (15세)
2관	해운대 (12세)
3관	10억 (15세)/국가대표 (12세)
4관	업 (전체)/퍼펙스겟어웨이 (15세)
5관	해운대 (12세)
6관	불신자 (15세)/퍼블릭에너지 (15세)
7관	아이스에이지-3 (전체)
8관	지.아이.조 (15세)
9관	국가대표 (12세)
10관	해운대 (12세)

* 500여년 넘은 주차장 34(2층) • 365 매일 심야
• 051 통신사 & OK 카페&카드 할인 혜택

* 하미 수영장 269-5757 * 하미 볼링장 262-0925
* 하미 골프장 251-5000 * 하미 문구장

* 매일심야 상영합니다 *

ARS 전화예매 1544-0070

씨너스 전대

복구보건소 건너편 ☎ 511-1000

1관	지.아이.조 (15세)
2관	오펜-천사의비밀 (18세)
3관	해운대 (12세)
4관	소피의연애메뉴얼 (12세)/요가학원 (15세)
5관	코코사발 (15세)
6관	블랙 (전체)
7관	국가대표 (12세)

* 무료주차 3시간
* 아동문신사 할인혜택
* 씨너스녹차 사무실(오전5시 ~ 오후11시)

ARS 전화예매 1544-0070

</